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모님의 마음으로 모든 병자들을 사랑합시다!

반갑 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정신적 육체적인 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과 병자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해 드리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님들, 자원 봉사자님들과 가족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은총의 행사를 준비하신 가톨릭의료협회의 최영식 회장 신부님과 모든 분들에게 좋은 하느님께서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유 흥 식(라자로) 주교
대전교구장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지난해에 하느님 품으로 가신 우리의 장하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1992년에 병자들과 병자들을 돌보는 의료인들을 위하여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을 「세계 병자의 날」로 정하셨습니다. 오늘은 14번째 맞는 세계 병자의 날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서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뜻을 받들어 「세계 병자의 날」을 맞아 특별 메시지를 발표하셨습니다. 모든 병자들과 병자들을 돌보는 의료인들을 위하여 특별 은총을 청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금년에 특별히 정신 장애와 관련된 문제에 여론의 관심을 촉구하시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자고 호소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들이 정신 질환자들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정신적인 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겪는 어려움이 매우 크지만,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이 겪는 고통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통수단의 발달과 홍보매체의 놀라운 발전으로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고독감과 외로움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질환을 겪고 있는 분은 물론이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인간이 느끼는 고독과 외로움입니다. 매우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가족 제도가 붕괴되고, 전통적인 사회적 결속이 약화되면서 고독감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병자들, 특히 정신 질환자들은 흔히 가정과 공동체의 짐으로 간주되면서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정신으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지속적으로 돌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의 고통을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느님께 봉헌하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어떠한 고통과 시련도 인내하며 받아들이면 가치가 있고 온 인류에 대한 하느님의 자비를 얻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한 병원, 진료실과 병실, 수용 시설 등에서 병자들을 보살피 주고 도와주는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고통 받는 이들과 그들을 돌보는 이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원목 사제들과 많은 자원 봉사자들의 활동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가 더 많은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월 23일과 24일에 로마 교황청에서 개최한



교황님께서서는 우리의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시고, 교회의 본질이 사랑이며, 교회의 자녀들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 하십니다. 사랑만이 인류를 구할 수 있고, 사랑만이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음을 교회의 자녀들과 온 인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자선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Deus caritas est)는 첫 번째 회칙을 발표하셨습니다. 교황님의 첫 번째 회칙을 교회가 더 잘 실현하기 위한 신학적이고 사목적인 방법을 찾는 매우 유익한 회의였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나아갈 길이 사랑임을 새롭게 깨닫고 다짐하는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회의 중에 교황님의 회칙에 대한 신학적인 담화가 있었고, 이처럼 고귀한 예수님의 사랑을 매우 어려운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영웅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는 감동적인 체험담들을 발표하였습니다. 브라질의 가난한 지역에서 마약에 빠진 젊은이들을 돌보는 일, 아프리카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이들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일, 미혼모들에 대한 교육, 외국인 노동자들을 돌보는 일과 정신 지체자들을 돌보는 일에 관한 체험담들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교황님을 알현하는 은총이 있었습니다. 교황님의 말씀은 사랑으로 가득하면서도 단호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교황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교황님을 개인적으로 뵙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회의를 주관 하시던 코르데스(Cordes) 대주교님께서 저를 “한국에서 온 주교입니다.”라고 교황님께 소개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미소 가득하신 모습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한국, 한국”하고 말씀하신 후에 “한국교회가 선교가 잘 되고 복음화 활동이 적극적이라고 들었는데 맞는 말이지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교황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복음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드리고 “교황님

의 첫 번째 회칙이 너무 좋으니 감사드립니다. 교황님의 회칙에 맞는 사목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고맙습니다. 계속 노력하시고 한국의 모든 신자들에게 나의 인사와 강복을 전해주시시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 손에 묵주를 선물로 쥐어 주셨습니다. 교황님의 인사와 강복을 전해 드립니다.

교황님의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회칙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명한 신학자로서 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을 23년 동안이나 하셨습니다. 교황님이 되신 후에 첫 번째로 발표하시는 회칙이므로 더 많은 정성과 신중함으로 주제를 택하셨을 것입니다. 교황님께서 유명한 신학자이시므로 첫 번째 회칙을 신학적인 주제나, 생명 또는 가정과 같은 큰 주제를 택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황님께서서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를 택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하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크게 방향을 잃은 듯이 보이면서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은 듯이 생각하며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고귀한 사랑이 실지로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도 의미가 변질되어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랑이 남용되고, 오용되고, 본래의 의미와는 정반대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이런 잘못 사용하는 사랑을 정화시키고 순화시켜서 본래의 의미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요한 4,16).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교회의 본질이라고 교황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마태 25,36)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형제들 가운데 작은 이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느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덕을 쌓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웃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자선 활동을 통하여 삼위 일체의 사랑을 반영하여야 하는 교회 공동체 전체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깨닫는 것은 교회 초창기부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 왔으며, 이웃에 대한 사랑의 봉사로서 '부제직' 이 교회의 기본 조직 안에 생겨났습니다.

가톨릭교회 안에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자선 활동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 효과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때에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자선 활동의 구조가 커지고 조직화되어도 이웃을 사랑하는 본래의 정체성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교회의 자선 활동은 항상 그리스도교와 교회의 사랑의 본질을 드러내 주는 빛을 발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의 자선 활동은 전문적인 능력을 지닌 것과는 별도로, 사랑으로 신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그들 안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켜 주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자선 활동은 당파나 이념에서 벗어나 있어야 합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원칙이며 예수님의 원칙이기도 한 그리스도인의 원칙은 “살피는 마음”입니다. 곧 사랑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살피서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만나는 생생한 체험은, 자선 활동가들이 한편으로는 마치 하느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당장 하겠다고 주장하는 이념들에 빠지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무기력과 체념에 굴복하려는 유혹을 피할 수 있습니다. 행동만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계획을 바꾸거나 고치

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모님과 성인들의 모범을 따라, 이 세상의 모든 어둠과 이기심을 물리치는 사랑의 힘과 빛을 하느님에게서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병을 앓고 계신 분들과 가족들과 의료인, 봉사자 여러분,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발표하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회칙의 정신대로 생활합니다. 예수님께서 최고라고 가르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범으로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늘 지니고 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사랑만 계산해 주십니다.

아픈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해 드려야 합니다.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병을 통하여 인생을 올바르게 깨닫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병은 하느님의 큰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환자의 병도 치료해 주면서 마음까지도 치료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황님께서 금년 병자의 날 메시지에서 정신적인 질환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특별히 돌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사랑을 받으면 정신적인 외로움과 고독을 벗어나 정신적인 질병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면 마음에 상처가 남을 수 없습니다. 사랑만이 상처를 아물게 만듭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자신의 상처도 낫게 됨을 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면서 우리는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위로를 받고,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지는 빛을 비추겠다고 다짐하며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